

Today Chart *Bond*

2026. 9. 20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2026년 9월 BOJ: 1995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

경제·물가

기본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 보이고 있음

경제: 중동 정세 영향 받으면서도 완만하게 회복

- 글로벌 시 관련 수요 증가
- 고용·소득 환경 개선
-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

물가: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은 2%에 근접하고 있음

- 국내 기업 물가는 전년대비 높은 상승세
- 가격 상승 압력이 소비자 단계에서 파급 시작
-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

리스크 요인

중동 정세, AI 관련 수요 확대, 외환시장 변동

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이 2%의 '물가 안정 목표'를 넘어 상회하여 더 높아질 리스크 존재

금융 환경

일본의 금융 환경은 완화적인 상태에 있음

2%의 '물가 안정 목표' 지속적·안정적인 실현의 관점으로부터, 금융 완화 정도 조정

단기금리(무담보 콜(O/N)물): 1.25% 정도로 인상(기존: 1.00% 정도)

-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유지되므로, 앞으로도 경제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
- 경제·물가·금융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,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
- 조정의 시기와 속도는 기본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과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검토
-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2%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

주: 리플레파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

자료: 日本銀行, LS증권 리서치센터

2명의 반대는 모두 리플레이션파로부터 나왔다

위원	임기	위원	임기	위원	임기
 우에다 카즈오 중립	'23.4.9 ~ '28.4.8	 타카타 하지메 강한 탁파派	'22.7.24 ~ '27.7.23	 마스 카즈유키 약한 탁파派	'25.7.1 ~ '30.6.30
 우치다 신이치 중립/탁파派	'23.3.20 ~ '28.3.19	 타무라 나오키 강한 탁파派	'22.7.24 ~ '27.7.23	 아사다 토이치로 리플레派	'26.4.1 ~ '31.3.31
 히미노 료조 중립	'23.3.20 ~ '28.3.19	 코에다 준코 약한 탁파派	'25.3.26 ~ '30.3.25	 사토 아야노 리플레派	'26.6.30 ~ '31.6.29

Key Point

- 단기금리(무담보 콜 익일물)를 1.00% → 1.25%로 25bp 인상. 이번 결정은 찬성 7명, 반대 2명. 동결 소수의견 제시한 위원은 모두 리플레파
 - 아사다 토이치로 위원: 최근 소비자물가(신선식품 제외) 상승률이 2%를 하회하는 가운데, 경제 상황이 반드시 강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시 금융 시장 조절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대
 - 사토 아야노 위원: 경제·물가 상황이 현 시점에서, 이전에 비해 크게 가속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므로, 지금 시점에서의 인상은 부적절하다며 반대
- 우에다 카즈오 총재, 높은 유가 등을 기점으로 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폭 넓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
 - 우에다 총재, '정책 국면의 변화' 및 물가 상황에 따라 특정 방식(연속 인상 또는 빅스텝 인상 등)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, 2명의 동결 소수의견 제시된 점 등이 도비시하게 평가되면서 오히려 달러/엔 환율은 상승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일자: 우혜영)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보합 민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